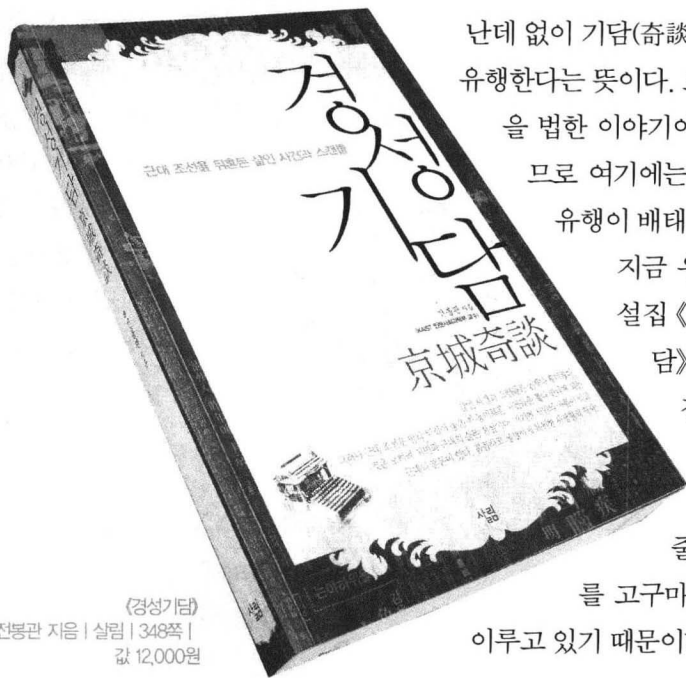


《경성기담》

차별화된 기담을 기다리는 간절함...
근현대사의 우리 기담이 주는 교훈

글_임동헌



《경성기담》
전봉관 지음 | 348쪽 |
값 12,000원

난데 없이 기담(奇談)이 유행이다. 달리 얘기하면 ‘희한한 이야기’가 유행한다는 뜻이다. 으스스하게 귀신 나오는 괴담과 달리 기담은 ‘있을 법한 이야기이면서 매우 드문 이야기’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유행은 그 이면에 유행이 배태될 수밖에 없는 함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기담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 《도쿄 기담집》, 아사다 지로의 소설집 《사고루 기담》, 전봉관의 《경성기담》인데, 필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책은 《경성기담》이다. 두 일본 작가의 책은 기담을 모티프로 삼은 소설집인데 반해 《경성기담》은 인문 교양서인 데다 우리 역사 책에 한 줄 이상 언급되지 않은 ‘팩트’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고구마 줄기 캐듯 복원해 나감으로써 뜻밖의 성취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1971년에 태어난, 올해 서른 다섯 살의 비교적 젊은 저술가이다. 서른 다섯 살의 저술가가 근대 조선의 역사에서 한 줄밖에 안 되는 사료를 토대로 그 사료의 구체가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은 얼마나 지난한 일일 것인가. 그 지난함을 감내하면서 이런 저작을 생산해 낸 저자는 ‘저자의 말’에서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이 모순된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절감했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한 가지는 ‘오늘 밤도 아내는 널찍한 퀸 사이즈 침대에 혼자 잠 들었다. 큰돈이 생기지도 않는 일에 기꺼이 남편을 양보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는 것이다. 즉, 저술 활동은 공적인 생활이고, 아내가 잠든 시간에 홀로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사생활이라는 뜻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사실, 알고 보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책에 섬세하게 소개된 〈중앙보육학교 박희도 교장의 ‘여제자 정조 유린’ 사건〉을 보자. 박희도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얼핏,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박희도의 이력을 더듬어 올라가면 그는 1934년 조선중앙일보가 보도한 <박희도 중앙보육학교장의 '여제자 정조 유린'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 기사의 핵심은 박희도가 자신의 친구인 노원우 아내의 정조를 유린했다는 데 있다. 물론 박희도는 재판정에서까지 노원우와 그의 아내가 주장하는 팩트를 부인한다. 하지만 저자 전봉관은 노원우 부부와 박희도의 주장을 토대로 그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복원하면서 노원우와 그의 부인 주장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간다. 여성교육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진 박희도의 도덕성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가는 부머랭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을 독자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구 말이 맞느냐에 있지 않다. 이 책의 컨셉트를 따라가 보면 저자가 정작 주목한 부분은 '오늘도 여전히 이런 기담이 횡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4년으로부터 70년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건이 법정으로 번진 것까지 <박희도 중앙보육학교장의 '여제자 정조 유린' 사건>과 닮아 있고, 그 사건이 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했던 점 역시 닮아 있다. 예컨대, 70년 넘게 흐른 지금도 우리 사회는 국민이 뽑은 선량이 여기자 성희롱의 한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는 셈이다. 그런 사실 앞에 선 우리에게는 참 서글픈 일이다. 차기 대통령 출마 후보로 여성이 유력하게 등장한 시대이고, 내각을 관할하는 총리에 여성이 기용되고, 헌법재판소장에 여성이 내정돼 있는 시대에 생똥맞은 기담을 목격해야 하니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책에는 <죽첩정 '단두 유아' 사건>이 등장한다. 때는 1933년 한낮의 경성 도심 거리에서 몸통 없는 아이의 머리가 발견된다. 부검 결과 그 아이는 살아 있는 채로 목이 베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은 지 23년이 된 때, 조선의 치안 상태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치부됐던 시기이다. 경시청은 아연 긴장하게 되고, 범인을 잡기 위해 16일 동안 잡아들인 용의자만 무려 1백여 명에 달했다. 결국 범인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친구에게 아기의 곶을 주기 위해 죽은 아이의 무덤을 파헤친 배구석이란 사람으로 드러

났는데, 배구석을 범인으로 단정하기까지 조선의 23일 동안은 완전히 끓는 솥과 같았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게 된다. 즉, 최근에 발생한 '서래마을 유아 냉동 사건'이다. 역시 70년 넘게 지난 <죽첩정 '단두 유아' 사건>과 닮은 데가 많다. 어린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거리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점도 닮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갖가지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된 점 역시 같고, 세계적 치안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도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70여 년 전에는 23일 만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때보다 진화된 수사 기법을 자랑하는 오늘의 경찰은 초동 수사에 실패하는 바람에 프랑스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담이다. 그래서 한숨이 나온다. 어떤 사회든 기담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70년 전의 기담과 지금의 기담이 국화빵처럼 닮은꼴이라는 점에 이르면 부아가 치밀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가 '살인에도 품격이 있고, 그 품격이 곧 윤리적 수준인 것'이라고 말한 까닭 역시 70여 년 전의 기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네 기담의 아우라에 적이 실망한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기담이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 사람 사는 사회이므로 갖가지 기담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진보했다면 기담 역시 진보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우리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 부자 마을의 영아 냉동 사건 따위의 기담에 호들갑을 떨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왜? 지금은 '지식인은 먹물'이라는 편협에서 벗어나 '지식인은 시대의 담론 생산자'라는 덕담을 들어야 할 시대인 탓이다.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첨단 의학의 혜택을 받아 당당하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성기담》을 근현대의 괴이쩍은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자. 그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는 점에 귀를 기울이자. 그런 귀 기울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전봉관의 《경성기담》은 '우리와는 상관 없는 괴이쩍은 이야기'라는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고, 전봉관은 또 다른 《경성기담》을 펴내기 위해 아내를 킨 사이즈 침대에서 홀로 잠들게 할 것이다. ■